

하나됨과 나눔

“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 ”

〈 시편 119편 35절 〉

- 여름 공동체생활 동안 여러 모습으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과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오늘 주일 공동예배 중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물질의 나눔'은 예배에 참여하실 때, 준비된 함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 8월 3일(월)부터 17일(월)까지 공동체 휴가기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여름 공동체생활 (감사)

강단을 꽃으로 :

신협(헌금계좌) 사랑방교회(정재훈) 131-021-578132

농협(선교공동체계좌) 대한예수교장로사랑방교회 225036-55-003053

농협(학교후원회계좌) 사랑방공동체학교(정태일) 351-1165-8216-43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4 - 31 호

2026년 8월 2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내 마음의 고향

안녕하세요, 사랑방 식구 여러분. 사랑방으로 다시 돌아온 이지성 목사입니다.

6개월 동안의 안식년을 마치고 작년 마지막 날에 중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설날을 지낸 뒤 경하와 진의, 진심, 진지를 공항에서 배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혼자 베이징으로 올라가 새로운 사역과 삶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힘들었지만, 감사하게도 지금은 잘 적응하여 기쁘게 사역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3월에는 경하가 1주일, 4월부터 5월까지의 진심이 6주간, 7월에는 진의가 3주 넘게 저와 함께 지냈습니다. 참으로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진의와 진심이는 중국 교회 청년들과 깊이 교제하며 서로에게 유익한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공동체에서 자란 아이들이라 그런지 무언가 다르긴 다르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네, 아이들이 중국 아이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사랑방공동체에서 자란 아이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진의(盡意), 진심(盡心), 진지(盡智)에게 사랑방공동체는 고향과도 같습니다. 아이들이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라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도 사랑방은 영적인 고향이자 마음의 고향입니다. 제가 늘 농담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중국에서도 양주(揚州) 사람이고, 한국에서도 양주(揚州) 사람이다.”

물론 중국의 양주(揚州)와 한국의 양주(楊州)는 전혀 다른 도시입니다. 중국 양주는 인구 250만 명에 이르는 곳으로, 아름다운 정원과 물길로 유명한 명소이자 건륭황제(乾隆皇帝)가 7번이나 방문했고 신라의 최치원 선생이 유학했던 곳입니다. 전 국가주석 장쩌민의 고향이기도 하지요. 사자성어 '양주지학(揚州之鶴)'이 바로 제 고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고향 양주(揚州)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우 구스티누스(Augustinus)가 말했듯, 아무리 부족함 없이 살아왔더라도

선교와 섬김

“마음이 주님 안에서 쉴 때까지”는 참된 평안이 없었습니다. 이 말이 제 심정을 그대로 대변해 줍니다. 지금도 부모님을 뵈러 고향 양주에 자주 내려가지만, 영적인 경험과 추억, 연고가 없기에 제 마음이 편히 쉴 만한 곳은 아닙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대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이후 2000년에 한국으로 건너와 2005년부터 2015년까지(30세부터 40세까지), 인생의 가장 황금 같은 10년 동안 무림리 사랑방공동체에서 생활했습니다. 기독교 교육을 위해 들어온 사람도 있고 공동체교회를 배우러 온 사람도 있었지만, 저는 영성수련을 위해 사랑방에 들어왔습니다. 비록 수도원은 아니지만, 코이노니아 신학을 바탕으로 생활공동체, 교회, 학교까지 일관되게 펼쳐지는 신앙·교육·생활공동체였기에 이곳에서 머리로, 몸으로, 마음으로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웠습니다. 사랑방에서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날의 이지성 목사가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2015년 여름, 가족들을 데리고 중국으로 돌아간 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베이징뿐만 아니라 중국 교회에서 인정을 받으며 나름대로 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베이징 교계에는 해외 유학을 마치고 신학교에서 훌륭하게 가르치는 교수님들도 많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사랑방처럼 10년 넘게 공동체생활을 깊이 경험한 사람은 흔치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중국 교회를 섬기며 조금이나마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은, 장신대에서 배운 것도 많았지만 그보다 사랑방에서 생활하고 경험했던 것들 덕분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었을 때도, 제가 평화를 만드는 사람(Peace Maker)으로서 나름의 좋은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성도들과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사랑방공동체의 낙인이 찍힌 사람입니다. 사랑방공동체는 제 마음의 고향이자 영적인 고향입니다. 얼마 후면 또 중국으로 돌아가지만, 마음의 고향이 있기에 늘 행복하고 평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이지성 목사 드림



한주간의 말씀

“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
<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

<수요기도회>

인도 : 최기찬 전도사
찬송 : 331 600
기도 : 서병욱 집사
성경 : 고린도전서 3장
제목 : 공동체를 키우시는 하나님

1-9 자라나게 하신 분, 하나님

해석: 공동체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영향을 받으면서 살지만 중
요한 것은 공동체를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지라는 것이다.
적용: 사람을 따르지 말자. 사람으로 인해 실망하지 말자.

10-15 건축의 비유로 설명

해석: 각각의 공동체(교회)는 저마다 재료가 다른 것처럼, 다른 특징
을 가지고 그 역할들이 다르다.
적용: 각 공동체의 특성을 이해하고 존중하자. 우리의 특성(공동체를
지향하는 땅에 있는 하늘나라)을 알고 잘 지켜 가자.

16-23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해석: 자신의 판단으로 옳고 그름, 사람을 판단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과 그리스도를 바꾸지 못하는 것처럼, 자신의 생각보다는 그리스
도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
적용: 신앙에 있어 자기가 옳다는 생각이 들 때 겸손하자.
교만하지 말자.

어린이들의 기쁨

<최민용>

방학 중 기쁨 : 학교 안 가는 것

여름 공동체생활 기쁨 : 물놀이랑 강강술래가 재밌었다

여름 공동체생활 후기 : 푸른꿈 형들과 함께한 첫 공동체였는데 정말
색다른 경험이었다. 다음에 또 이렇게 해도
좋다. 5방에서 잔 건 에어컨 때문에 좀 추웠
다.

<권하민>

방학 중 기쁨: 혼자 축구하는 것.

여름 공동체생활 기쁨: 오랜만에 친구들도 보고 형,누나들도 볼 수 있
는 것

여름 공동체생활 후기: 이 교회에 다시 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다

<권하성>

방학 중 기쁨 : 한국 와서 가족들 만난 것

여름 공동체생활 기쁨 : 기쁨

<권하온>

여름 공동체생활 기쁨 : 물놀이가 재밌었다. 처음에 너무 차가웠는데
미끄럼틀 한 번 타니 적응됐다.

여름 공동체생활 후기 : 언니들이 잘 챙겨주고 놀아줘서 좋았다.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시 편 63 : 1-5

31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로마서 5 : 9

309

인도자
다함께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 교

요한복음 7 : 37-39

은혜로다(28)

“ 임마누엘의 기쁨 ” 정재훈 목사

설교자
연령별사랑방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182

288(3)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안내 : 채영학 박경희 / 봉헌위원 : 김이레 / 꽃꽂이 : 김영화
돕는 이들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임은숙 이예은
진시우 김보경 진나우 이홍인 정아인

예 배

하늘나라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

공동기도문 여름공동체 생활을 기쁨으로 지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임마누엘의 기쁨

초막절 행사. 초막절은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했던 삶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기뻐하는 축제입니다. 낮에는
'물의 예식'과 밤에는 '등불 예식'이 핵심을 이룹니다. 물을 붓는 관
제는 생명수를 의미하고, 영적 목마름을 해갈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초막절 선언. 예수님께서 명절의 마지막 날 성전에서 큰
소리로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선포하셨습니다.
부어드리는 관제는 일시적인 해갈이 그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어둠을 몰아내시는
세상의 빛으로서 영원한 생명의 빛이 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의 기쁨.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
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막을 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영
원한 초막절의 완성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던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재훈 목사 / 기도 : 석용범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멧쟁이학교 >

방학을 보내고 있는 멧쟁이 소식

화진심

방학에 동네 사는 선후배를 만나서 도서관 많이 갔다. 지금 지내는 것은 좋다. 다 좋다. (지리산 생각날 때 빼고) 앞으로는 특별한 일정 없고 매일 테스트 완료하며 효율적으로 살고 싶다.

최진용

방학에 놀고 있고 숙제도 하고 남원에도 내려갔었습니다. 지금은 피곤하고 쉬고 싶습니다. 남은 방학에는 운동도 조금하고 남은 숙제도 다 끝낼 것입니다.

박지호

곧 검정고시를 앞두고 있기에 검정고시 준비와 2학기에 갈 지리산 여행을 준비하면서 지냈다. 현재까지는 잘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는 달리기와 스페인어 공부를 할 예정이다.

김재준

지금까지 검정고시 공부를 했고 다이어트를 시작했다. 아직은 공부가 부족하고 운동이 필요하다. 쉬면서 방학숙제 조금씩 완성하고, 다이어트 운동을 할 것이다.

김가온

지난 방학 동안 밀린 공부를 했습니다. 현재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배움과 가르침



다. 남은 방학 기간에는 밀린 공부를 하며 다음 학기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김주찬(봄)

지금까지는 조금 휴식을 하고, 가족여행을 다녀오며 어떻게 일정을 보낼지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지금은 공동체생활에 와서 즐기고 사람들과 같이 있어 좋다. 이제부터는 방학 초반에 일정을 생각한 대로 살려 노력할 거다.

최시원

방학을 시작하면서 헬스 등 운동을 했다. 그러다가 오게 된 여름 공동체생활이 너무 즐겁다. 여름 공동체생활이 끝난 후에는 검정고시가 1번 목표이다.

이홍인

학기 때 달궜던 몸을 잠시 식히며 휴식을 취하며 책읽기 축구 게임 악기연주 영화보기 등 다양한 취미를 즐겼습니다. 아주 조금 공부도... 현재 공동체생활을 하면서 좀 피곤하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학교에 와서 재밌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남은 방학동안 가족여행, 학년들과 가는 여행, 친구와 가는 여행들이 다 있어서 아주 바쁠 예정입니다.

정아영

1. 방학하고 나서 가족들과 오케스트라를 몇 번 봤다
 2. 방학이라도 열심히 살자고 해놓고서 3주가 흐른 상태이다
 3. 첫 지리산을 가니 운동을 하고 다른 숙제들도 하기
- 

강강술래

얼마 전 우리나라 부산에서 열린 제 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막식 공연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은 강강술래를 모티브로 한 창작무용이었습니다. 공연의 제목이 인상적이었는데요. 바로 '화합의 문'이었습니다.

손에 손을 맞잡고 함께 원을 그리며 도는 모습은 언제 어디서 봐도 가슴이 뭉클해지는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그래서 많은 화가들도 이런 장면을 그림으로 담아내기도 했습니다.

이번 여름공동체생활 셋째날 밤에는 창작공연이 아닌 찐 강강술래가 펼쳐졌습니다. 풍물단의 인도에 따라 둥글게 서서 서로의 손을 맞잡은 첫 장면부터 감동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원 안 장작더미에 불이 활활 타오르면 정말 이때부터 심장이 마구 뛰고 진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강강술래 노래가 시작되고 둥글게둥글게 천천히 돌아 뛰기 시작하면 이제 정말 본격적인 놀이가 시작됩니다.

대문열기부터 덩석말기, 청어엮기가 이어지고 소리꾼들의 노래에 맞춰 신나게 놀입니다. 꼬리잡기를 시작하면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꼬리를 잡으러 달려갑니다. 남생이 놀이가 시작되면 각 방과 연령별에서 나와 불 앞에서 신나게 뛰며 소리치며 춤을 춥니다. 이때 추는 춤은 태고적 원초적인 몸 사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더 신명이 나고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놀이가 마무리되면 다시 손을 잡고 둥글게 원을 만듭니다. 얼굴은 발갛게 상기되어 있고 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습니다.

옆 사람의 얼굴에서 내 얼굴을 봅니다. 땀이 흥건한 손에서 나와 같은 뜨거운 열정을 느낍니다. 나와 너는 없고 우리만 남는 놀라운 화합의 경험을 합니다. 말 그대로 '형제, 자매가 어울려 함께 사는 모습'입니다. 참 화합의 모습입니다.

사랑방에 화합의 문이 활짝 열렸으니 앞으로도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사는 기적의 삶이 계속되리라 믿습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장영미 전도사

<수요 정오기도회>

인 도 : 최기찬 전도사

찬 송 : 220장, 221장

성 경 : 시편 133편

말 씬 : 함께 사는 영생의 복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해 <중동전쟁을 위해>

미국과 이란 간 직접적인 군사 충돌은 소강상태지만 대리 세력들 간 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라크, 사우디, 요르단 등 미군 기지가 있는 중동 국가들이 잇따라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2. 교회 갱신과 공동체를 위해 <수련회와 공동생활을 위해>

교회와 공동체들이 여름에 집회를 갖는 주간입니다.

프로그램이 교회와 공동체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을 누리는 즐겁고 아름다운 천국의 삶이 되도록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 위해

1) 여름 공동체생활을 위해(마음의 준비와 성령의 이끄심에 잘 따를 수 있도록)

2) 무더운 여름 건강 조심하도록

<생활공동체 소식>

여름 공동체생활 준비를 위해 계속 제초작업을 했습니다. 잡초들과 잔디를 정리하면서 마음속에 돌아난 부정적인 생각들은 뽑아내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름 공동체생활을 준비했습니다.

교육관 2층 공간도 공동체생활 기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하고 폐기물도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손과 힘을 모아 정리했습니다. 이렇듯 정성어린 준비의 손길들과 마음이 모여 기쁨이 넘치는 여름 공동체생활이 된 줄 믿습니다.

<장영미 전도사>